나누거나 빼보자, 과감하게!

크고복잡한것만이미덕은아니다. 오히려작고가볍고단순한것이더욱사랑스럽고가치를인정받을때가있는것이다.

뜨거운여름, 미녀들의각선미를 뽐내는미니스커트도빼기미학의 산물이다.

무명의 디자이너였던 B씨는 디자인계를 충격에 빠트릴 파격적인 의상을 꿈꾸고 있었다. 자신의 끼와 감각, 디자이너로써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그런그녀에게기회가찾아왔다.

더운 여름, 이브닝드레스의 컨셉을구상하던 그녀는아주 근사한광경을목격하게 된다. 전통 중국 의상을 입은 한 여성이 종종 걸음으로 거리 한 복판을 걷고 있었던 것. 직업의식이발동한그녀가그의상의윤곽을스케치북에열심히옮기고있는사이. 또다시 재미난장면이연출됐다.

카페에 앉아 노닥거리던 남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중국인 아가씨에게 쏠려 버린 것이다. 누가먼저랄것도없이남자들은그녀의일거수일투족을마치씹듯이바라보고있었다. 심지어는 담뱃불을 붙이는 것도 잊은채 그녀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이도 있었다.

이유는 여성의 곡선을 유감없이 드러내보이는 드레스의모양 때문이었다.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여성의 몸에 착 달라붙은 드레스는 자그마한 동양인 처녀를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보이게 했다. 게다가 살짝 트인 치마 틈새로 간간히 보이는 얇은 종아리, 남자들이 넋을잃을만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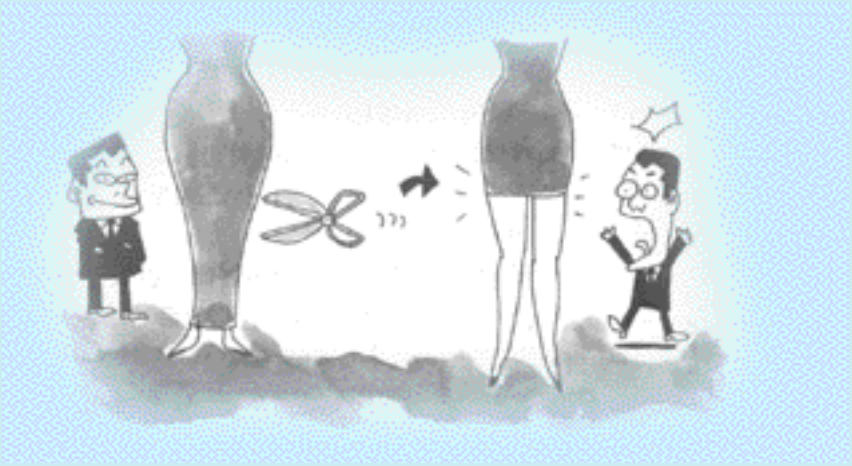
당시만해도여성의스커트는발목까지치렁치렁내려오는것이미덕이었다.

유행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은 종아리를 드러낸 스커트를 입기도 했으나, 무릎위를 내놓는것은상상도못할일이었다.

‘ 치마 틈새로 보이는 다리에도 저렇게 열광하는데, 만약 치마가 아예 짧으면 어떨까? 아름다운다리곡선을굳이천조각뒤에감출필요가있을까? ’

골목으로 사라지는 중국인 처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B씨는 막 새로운 디자인을완성했다.

그녀가 고안한 디자인은 그동안 당연시 여겨왔던 길고 폭넓은 치마를 숭덩 잘라버리



는 것. 종아리는 물론이고 허벅지까지 아슬아슬하게 드러내는 새로운 스커트의 출현이었다. 이른바미니스커트.

처음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을때, 그녀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녀가 속옷을 디자인했다며 정신병자 취급을 하기도 했다.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로는 도저히새로운스커트가패션으로자리잡을가능성이없어보였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예상은적중했다. 몸매를 뽐내고싶은 젊은 여성들이앞다퉈 그녀의 스커트를구입했고, 결국미니스커트는그 시대의 상징물로 등극했다. 불필요한 것은 없애버린다는과감한 도전의식이그녀를세계적인디자이너의반열에올려놓은것이다.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왠지 거추장스럽다면 과감히 없애보자. 미니스커트가 그랬던 것처럼빼기의법칙을이용하면, 가볍고단순하고실용적인발명품이나올수 있다.

최근에인테리어용으로많이쓰이는적갈색 벽돌중에도빼기의법칙이숨어 있다.

벽돌이 인간의 건축용 자재로 사용된 것은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나 지금이나벽돌의모양은변함없다. 때로거대한암석을쪼아만들어모양이불규칙한것도있긴하지만, 직육면체의단단한모양은아주오랫동안벽돌의대명사로굳어져버린것. 새로운아이디어나모양이적용될것같지않다. 그런데이벽돌에도놀라운빼기기술이적용되어새로운제품이만들어졌다.

이른바‘ 구멍벽돌 ’, 시멘트로쌓아올려지는벽돌의한면에구멍이뻥뚫린제품이바로 그것이다.

외장용 벽돌의 한 가운데를 뚫어 그만큼의 재료를 절약했다. 게다가 가벼워서 옮기기도 그만. 구멍을이용해서 아기자기한모양의담을쌓을수도있다.

벽돌의 한면은쌓아 올려져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점에 착안한아이디어다. 가

격도그만큼저렴해건축업계에서인기있는아이템이됐다. 빼기기술로1석3조의효과를 만들어낸것이다. 이벽돌도빼기법칙이활용된발명품. 쓸모없는부분을없애서성공했다. 이밖에도빼기 제품은수없이 많다. 문자판의숫자를과감하게없앤디자인 시계, 연통을없앤난로, 카페인을 제거한커피등등.

빼기와비슷한기법으로는나누기를들수있다.

크고무겁고 비싼것을나눠서, 싸고작고가볍게만드는것이다.

나누기기법이적용된매력적인아이템은조각 피자.

출출할때근처에피자가게라도있으면, 그황홀한냄새는…, 피자를좋아하는사람이라면, 그 유혹에견디지못하고주저없이가게안으로들어서게된다.

이때일행이있다면만사형통, 작은크기의피자를시켜서음료수와맛나게먹을수있다. 문제는 혼자일때다. 한판에많게는 여섯 조각이나되는피자를 혼자서모두먹기는 참으로 곤란하다. 게다가 피자 한 판의 가격은 만원이 훌쩍넘지않나. 큰맘먹고피자 한 판을 시켜서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포장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다. 포장된피자를덜렁덜렁 들고 다녀야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식은 피자를 먹는고생(?)까지감수해야한다.

피자를 싸들고 버스라도 탄다면… 아마도 강렬한 피자 냄새 때문에 모든 승객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조각 피자.

커다란 피자를 작게 나누어 파는 이 아이디어는 바쁜 직장인과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는젊은이들에게그야말로‘ 적중 했다. 조각으로나누어진피자는부담도없고, 가격도 싸서 젊은이의 발길을 잡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종류별로 한 조각씩 맛볼 수도 있어, 피자를좋아하는이에겐그야말로축복과같은아이디어다.

또최근에여성들에게인기를끌고있는B업체도‘ 작게하라 ’는기본아이디어로선풍을 일으키고있다.

다시마 식품이 숙변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알려진사실. N업체는 이점에 착안해 약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다시마정제식품을 내놓았다.

다시마 정제를 물과 함께 살짝 씹어 먹으면, 마치 많은 다시마를 먹은 것 같은 효과를 가진 아이디어 상품이었다. 처음 이 상품이 시장에 선보였을 때에는 날개 돋힌듯팔렸다. 젊은여성들과변비에시달리던 사람들이 다시마의 효능을 믿고 제품을구입했다.

그러나인기는잠시뿐, 점차매상이줄어들기 시작했다. 한 번 사용한 사람들은 먹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제품에 고개를 설레설레흔들었던것이다.

다시마정제의크기가보통의알약만큼 커서 한번에 3~4알씩 넘기기가 힘든데다, 씹으면다시마특유의맛때문에웬만한 비위로는먹기힘들었다.

이렇게 N사가 고전을 하는 무렵, 경쟁사인 B사와 H사가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서 틈새시장을 공약하고 나섰다. N사 제품의 결정적인 단점을 보완해서 먹기 좋도록 작은 제품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B사의 경우, 다시마를 과립 형태로 만들어 출시했다. 씹을 필요도없고, 목에 걸릴 걱정도없었다. 입소문을통해서 두제품은 빠르게퍼져나갔다. N사 제품을 앞질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급기야는 인터넷 판매에서 최고 인기상품으로 떠올랐을 정도. 같은 제품을 그저‘ 작게 했을 뿐인데, 성공의 기회를 잡은것이다.

주정 없이 나누고 빼보자. 큰 것을 줄이고, 많은 것을 빼는 사이에 신선한 아이디어가 싹 틀것이다.

작은고추가맵다고하지않던가. 아이디어의매운맛으로승부하자. 승리가멀지않은 곳에있다.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관리지원팀장
왕연중 記

발특2005/1